



렛츠런파크 서울에 2월부터 새롭게 등장한 외국인 기수 칼슨(사진 왼쪽)과 신지. 스웨덴 출신의 젊은 피 칼슨은 기수생활 7년간 벌써 242승을 기록했다. 일본의 신지는 기수경력 17년째로 통산 849승을 따낸 베테랑이다.

외국인 기수 칼슨·신지, 급이 다르다

칼슨, 12경기 출전만에 2번 우승·1번 준우승
일본에서 통산 849승 신지, 데뷔전서 준우승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에 새로운 외국 피가 수혈됐다. 스웨덴 출신의 칼슨과 일본 신지 기수가 주인공이다. 이들은 4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경마고객들에게 첫 신고식을 했다. 4~5일 사이에 칼슨은 우승 2회 준우승 1회, 신지는 준우승만 1차례 차지했다.

●젊은 피 세인 패트릭 칼슨(Shane Patrick Karlsson)을 소개합니다.

칼슨은 1991년 12월 생으로 만 25세의 젊은 기수다. 기수경력도 7년에 불과하지만 UAE, 영국,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을 돌며 벌써 242승(승률 10.6%)을 쟁했다. UAE, 영국, 독일 등은 현재 PART I 으로 분류된 세계 최고의 경마국가다. 한마디로 메이저리그에서 놀던 기수다.

칼슨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것은 도전정신 때문이다. “15살 때부터 세계 곳곳을 돌며 기수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아시아에선 경험이 없었다. 이 점이 나를 한국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칼슨은 “한국경마의 좋은 부분을 많이 들었기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 짧은 기간이지만 최대한 많은 우승을 기록하는 것이 목표”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칼슨은 4~5일 사이 12번이나 경주에 출전, 2번의 우승과 1번의 준우승을 기록하며 경마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데뷔 무대였던 4일 1경주(국6등급)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놀라움이 더 컸다. 당시 ‘프리마퀀’에 기승한 이철경 기수에게 아쉽게 우승을 내주긴 했으나, 이철경 기수가 4kg의 감량해택을 받았음을 감안하면 실력은 충분히 자랑하고도 남았다.

성공적인 데뷔전을 가진 칼슨은 결국 4일 마지막 경주인 제12경주(2등급)에서 우승하며 한국에서의 첫 승을 기록했다. 칼슨은 기세를 그대로 이어나가며, 5일 1등급 경주에서도 ‘장산제

왕’과 함께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칼슨의 국내 활동 예정기간은 3월31일까지 2개월이다.

●17년차 베테랑 하타나카 신지(Hatanaka Shinji)를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통산 849승을 기록했던 하타나카 신지도 4일 데뷔전을 치렀다. 1980년 9월 생으로 올해로 만 36세인 베테랑이다. 2001년 데뷔해 17년 경력을 자랑한다. 통산 승률은 14.3%다.

신지는 “일본을 벗어나 다른 나라를 물색하던 중 한국이 마음에 들어 찾아오게 됐다.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심히 기승하도록 하겠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신지는 이를 동안 15차례 출전했지만 아직 승을 차지하지 못했다. 4일 제6경주에서 ‘클린업스카이’와 멋진 호흡을 선보이며 이혁 기수와 승부를 벌였지만 아쉽게 목차로 우승을 내줘야 했다. 신지의 국내활동 예정기간은 4월30일까지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12일 1등급 경주 ‘삼봉-당산대협-천지스톰’ 3파전

12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1등급 경주(제10경주, 1800m, 핸디캡)가 열린다. 연령 오픈에 성별 제한도 없다. 질대강자도 없다. 출전 마 가운데 상당수가 예전에는 뛰어난 기량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좋지 못한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누가 우승할지 오리무중이고 더 흥미로운 경기다.

제도약을 노리는 첫 번째 우승후보는 ‘삼봉’(한국, 거, 5세)이다. 경주를 앞두고 기세가 좋다. 지난해 10월, 1등급으로 승급해 두 번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직전 1800m 경주에서도 입상을 기록

했다. 전형적인 선입형 경주마지만 중반 이후에도 강점이 있어 장거리도 거뜰하다. 1등급 승급 이후 1800m 경주에서는 단 한 번도 입상을 놓치지 않았다. 경쟁자들에 비해 부담중량도 상당히 낮다. 여러모로 우승하기 딱 좋은 기회다.

전형적인 추입마 ‘당산대협’(미국, 거, 6세)도 출사표를 던졌다. 2015년 4월, 1등급으로 승급한 이래 지금껏 기록이 있는 성적을 기록했지만 중반 탄력 발휘에 강점이 있어 언제든 반향을 노려볼만 하다. 기존 경주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붙어볼

만한 레이이스다. 능력만 제대로 발휘한다면 입상도 충분하다. 직전 1800m 경주에서 모처럼 입상했지만 부담중량에는 차이가 없다. 추입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모처럼의 우승도 가능하다.

‘천지스톰’(한국, 수, 4세)도 눈에 띈다. 전형적인 선행마이지만, 추입이 가능하다. 북병마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3개월만의 출전이라 실전감각 회복이 관건이다. 지난해 보여줬던 두 번의 직전경주에서의 저력이 눈부셨다. 지난해 9월 2000m 특별경주에서 15마신자 대승을 거두며 1등급으로 승급했고, 곧이어 펼쳐진 대통령배에서도 서울말 가운데 첫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종건 기자



축구팬 38% “토트넘, 리버풀에 승리할 것”

축구토토 승무패 6회차 투표를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11일(한국시간)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8경기, 독일 분데스리가 6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축구토토 승무패 6회차 계입을 발매한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경기는 EPL 2위 토트넘과 5위 리버풀의 맞대결이다. 37.60%의 참가자들은 원정팀 토트넘의 승리를 점쳤다.

●최근 상승세 토트넘과 상대전적 우위 리버풀 중 승자는?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최근 상승세를 탔다. 9경기 무패행진이다. 첼시가 승점 59로 부동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2위 토트넘(승점 50)과 6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승점 45)의 승점차는 5점에 불과할 정도로 중상위권 순위경쟁은 치열한 편이다. 토트넘으로선 이번 리버풀(승점 46)과의 일전에서 승리를 챙기려면 순위경쟁에 한 발 앞서갈 수 있다.

반면 위르겐 클롭 감독의 리버풀은 최근 5경기째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면서 순위경쟁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분위기가 심각하다. 문제는 약화된 공격력이다. 클롭 감독의 압박전술로 선수들의 체력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공격진이 최근 10경기에서 8골밖에 넣지 못했다. 토트넘의 수비벽이 부상으로 얹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리버풀의 창끝 또한 무더진 상태다.

상대전적에선 리버풀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리버풀은 2012년 패배 이후 6승3무로 토트넘에 진 기억이 없다. 최근 팀 분위기가 좋고 보면 토트넘의 승리가 유력한 듯하지만, 축구의 의외성

축구토토 승무패 6회차 투표를 중간집계

경기일시			원정			(9월 오전 9시 현재)		
번호	경기일시		원정	홈 승	무승부	홈 패		
1	2/11(토)	23:30	바이어04레버쿠젠 : 프랑크푸르트	42.15%	25.63%	32.22%		
2	2/11(토)	23:30	베르더브레멘 : 뮌헨글라트바흐	24.16%	26.98%	48.86%		
3	2/11(토)	23:30	다름슈타트98 : 도르트문트	6.06%	10.27%	83.67%		
4	2/12(일)	00:00	맨체스터유나이티드 : 왓포드	84.27%	9.81%	5.92%		
5	2/12(일)	00:00	미들즈브러 : 에버턴	12.11%	21.57%	66.32%		
6	2/12(일)	00:00	스토크시티 : 크리스탈팰리스	65.08%	17.55%	17.38%		
7	2/12(일)	00:00	선덜랜드 : 사우샘프턴	39.04%	30.47%	30.49%		
8	2/12(일)	00:00	웨스트햄유나이티드 : 웨스트브로미치	51.37%	31.11%	17.52%		
9	2/12(일)	02:30	리버풀 : 토트넘홋스퍼	27.76%	34.64%	37.60%		
10	2/12(일)	02:30	샬케04 : 헤르타베를린	49.69%	23.46%	26.85%		
11	2/12(일)	22:30	버리 : 첼시	9.64%	11.88%	78.49%		
12	2/12(일)	23:30	볼프스부르크 : 1899호펜하임	20.36%	24.58%	55.06%		
13	2/13(월)	01:00	스완지시티 : 레스터시티	52.27%	23.50%	24.23%		
14	2/13(월)	01:30	프라이부르크 : 쾰른	45.19%	27.91%	26.90%		

을 고려한다면 선택지에서 리버풀을 쉽게 버릴 수는 없는 경기다.

●선두 첼시, 무패행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승리 예감

첼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25라운드에서 각각 버리와 왓포드를 상대한다. 대다수의 참가들은 역시 첼시(78.49%)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84.27%)의 손을 들어줬다.

첼시는 24라운드 아스널전에서 3-1 승리를 거두고 4경기 무패를 기록했다. 승점차에서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아직도 14경기나 남아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버리 같은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무조건 승점 3을 벌여야 한다. 상대전적에서 4승2무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첼시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15경기 무패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시즌 초반과 달리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를 중심으로 여러 선수들이 골 페이드에 가세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5일 레스터시티를 상대로도 3-0 완승을 거뒀다. 그러나 이번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무조건적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왓포드가 최근 아스널과 버리를 연파하며 만만찮은 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9월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왓포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3-1로 제압한 바 있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경기다.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6회차는 11일 오후 9시 50분 발매 마감되며, 상세한 일정은 케이토토 홈페이지(www.ktoto.co.kr) 및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벳맨(www.betma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간 26조 규모 불법사설경마 조직 소탕

마사회·광주경찰서 공조 일당 3명 검거

한국마사회가 8일 경기 광주경찰서와 공조해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배팅사이트 운영자들을 검거했다.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오간 판돈만 무려 5208억원으로 1년 단위로 환산하면 26조 원 규모의 불법도박이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배팅사이트 운영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마사회는 지난해부터 오랜 시간 물밀작업에 착수했다. 불법경마 현장정보를 입수한 마사회 사이버단속팀은 수차례 현장 확인을 근거로 범죄조직을 센터급으로 판단하고 관할 사법기관인 경기 광주경찰서 사이버팀과 함께 공동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실제로 단속이 진행된 건 1월 22일이었다.

오전 10시부터 무려 5시간 이상 잠복한 끝에 마사회와 광주경찰서 사이버팀은 불법 배팅 대형 조직을 운영해온 일당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마사회가 일명 센터라 부르는 인터넷 불법배팅 프로그램을 122개 운영 관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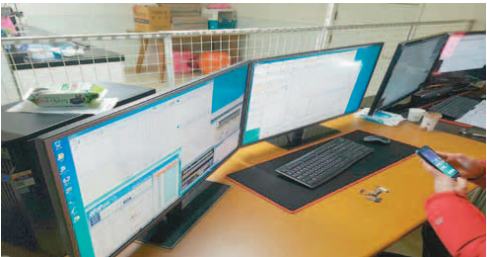
이들 센터들은 마사회가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외발매소와 비교된다. 센터 하나당 하루 평균 매출이 15억원에 육박하고, 122개 센터가 운영하는 하루조직도 9760개나 됐다. 단속이 이뤄진 22일 당일에만 1704억원의 불법배팅이 이뤄지고 있었다. 20일부터 3일간 총 5040억원의 판돈이 오갔다. 1일으로 환산 시 무려 26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규모였다.

마사회 ‘재활승마·힐링승마’ 1학기 강습생 모집

한국마사회 렛츠런 승마힐링센터가 2017년 1학기 재활·힐링승마 강습생을 모집한다. 두 강습 모두 3월2일부터 8주간 주 1회 운영된다.

재활승마 1학기 강습생은 15일까지 모집한다. 강습은 3월2일부터 4월23일까지다. 만 6세~12세 대상의 아동반(심화반 포함)과 만 13세~30세 대상의 청소년·성인반 등 2개 과정이다. 렛츠런 승마힐링센터 3개 지점(과천, 원당, 부산)에서 주 1회씩 운영된다.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1개 반은 최대 2명으로 구성된다. 강습은 10단계 프로그램에 따른 체계적인 기승수업과 말을 활용한 동물교감 프로그램(Ground Activity) 등으로 구성된다. 가족 힐링승마와 심리상담 등도 추가로 받아볼 수 있다.

강습반과 별도로 만 6세~40세 장애인 그룹 1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승마 단체체험반’도 상시 모집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다. 복지기관이나 특수학교



한국마사회 사이버단속팀과 경기 광주경찰서 사이버팀이 공동수사 끝에 적발해낸 불법 배팅사이트 운영 현장. 센터라 부르는 인터넷 불법배팅 프로그램 122개가 운영 관리되던 장소다. 이곳에서 사흘 동안 오간 판돈만 무려 5208억원이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는 “이 조직이 1년간 활동했다면 연간 한국마사회 전체 마권발매 규모 3배 이상이 된다”고 했다. 그만큼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전까지 한국마사회가 적발한 최대 규모의 불법 배팅 운영센터는 2016년 3월에 적발한 서울시 용봉동 건이었다. 당시 4명을 검거했으며, 당일 판돈은 521억원이었다.

한국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 시장규모가 이번 에 단속된 26조원을 훨씬 넘을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보안을 통해 불법시장을 합법 시장으로 유도하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번 적발이 마사회 단속 능력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는 데도 좋은 기회가 됐다. 앞으로도 사법기관과 긴밀한 공조 단속으로 불법 배팅 시장을 근절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건 기자

는 물론 가족 단위로도 참여 가능하다. 강습반과 단체체험반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청소년 힐링승마는 ‘말(馬)을 통한 힐링’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마사회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 가운데 하나다.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진로에 주목해 강습대상을 선정한다. 만 13세~18세 청소년 가운데 학교부적응 중교교생과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이 대상이다. 1개 학기는 8주로 주1회 강습으로 진행된다. 기승수업 외에 자신감 협동심 생명존중을 위한 동물교감 프로그램, 말산업 직업체험과정 등도 함께 제공된다. 렛츠런 승마힐링센터 3개 직영점(과천, 원당, 부산)에서 모집 중이다. 상시 선착순 선발이다. 1학기 강습은 3월2일부터. 재활승마와 힐링승마 모두 유료다. 수업금은 렛츠런재단에 적립돼 전액 사회공헌사업에 활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호스피아(www.horsepia.com)와 한국마사회 기업홈페이지(www.kra.co.kr) 참조. 김종건 기자

“KDB생명 60점대-신한은행 70점대 1순위”

농구토토 W매치 28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10일 오후 7시 구리체육관에서 펼쳐지는 2016~2017시즌 국내여자프로농구(WKBL) KDB생명-신한은행전을 대상으로 한 농구토토 W매치 28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홈팀 KDB생명(35.09%)과 원정팀 신한은행(37.43%)의 지지율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같은 점수대 박빙승부 예상은 27.47%로 집계됐다.

전반에도 KDB생명(36.93%)과 신한은행(33.82%)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5점차 이내 접전 예상(29.25%)이 그 뒤를 이었다. 최종 득점대에선 KDB생명 60점대, 신한은행 70점대

농구 W매치 28회차 투표를 중간집계 (9일 오전 9시)

구분	전반 득점대		최종 득점대	
	KDB생명 vs 신한은행	투표율	KDB생명 vs 신한은행	투표율
1순위	25-25	9.71%	60-70	15.51%
2순위	30-30	8.43%	60-60	12.20%
3순위	35-30	7.17%	60-50	10.06%
홈팀 우세		36.93%	홈팀 승리	35.09%
합계	5점 이내 박빙	29.25%	10점 이내 박빙	27.47%
원정팀 우세		33.82%	원정팀 승리	37.43%

예상(15.51%)이 가장 높았다. 이번 농구토토 W매치 28회차는 경기 시작 10분 전인 10일 오후 6시50분 발매 마감된다.

‘토토언더오버’ 6회차 10일 오전부터 발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의 새로운 배당률 게임 ‘토토언더오버’ 6회차가 10일 오전 9시30분부터 발매된다.

지난해 12월 선을 보인 토토언더오버는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을 대상으로 5경기 또는 7경기를 선정해 홈팀과 원정팀 각각의 최종득점이 주어질 기준값과 비교해 낮았는지, 높은지를 예상하는 배당률 게임을 한다. 각팀의 최종득점이 기준값 미만이면 언더(U), 초과면 오버(O)를 선택하면 된다.

이번 6회차는 13일(한국시간) 열리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경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경기, 미국프로농구(NBA) 3경기 등 총

7경기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일정을 살펴보면 프리메라리가에선 레가네스-스포르팅 히혼(1경기)전을 비롯해 라스팔마스-세비야(3경기)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셀타비고(4경기)전이 선정됐다. EPL에선 스완지시티-레스터시티(2경기)전이 지정됐다. NBA의 경우 미네소타-시카고(5경기)전을 시작으로 뉴욕-샌안토니오(6경기)전, 토론토-디트로이트(7경기)전이다. 이번 토토언더오버 6회차는 12일 오후 9시50분 발매 마감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뒤 케이토토 홈페이지(www.ktoto.co.kr) 및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벳맨(www.betman.co.kr)을 통해 결과가 발표된다.